

데이터베이스 이야기

유경희

(사)한국복지정보통신협의회 부회장

머리말

필자는 지난 4년간 하이텔의 코너를 빌려서 “원로방”이라는 이름의 고령자들의 PC통신 클럽을 결성하여 보았다. 이는 미국의 고령자 PC통신 클럽인 시니어네트(SeniorNet)와 일본의 고령자 PC통신 클럽인 멜로우네트(Mellow-Net)와 유사한 것이다. 4년동안에 지역별로 직능별로 단위원로방이 14개처 나 생겼고 전체 회원 수가 4천명이 넘는 규모로 성장했다.

미국이 4만명 일본이 1만명에 비해서 인구 비례로 보아서 작은 수가 아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너무나 작은 수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다. 즉 일본이나 미국에서는 고령자라고 해서 PC통신망의 이용료를 면제하여 주지 않는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한국통신이 무상으로 공급하고 있는 “하이텔 단말기”, 한국PC통신(주)이 특별히 고령자에게 사용료를 면제하여 주는 조치, 이 두 가지가 결정적으로 원로방의 인구를 늘

려 준 것이라고 할 수가 있다.

하기야 원로방 회원들 가운데 어떤 이는 “전화요금 추구를 당할 가봐” 포기하는 경우도 목격한 터라 컴퓨터를 사라느니 PC통신망에 가입하라느니 하면서 원로방 확장을 했다면 아직도 요원했을 것이다. 지난달에 일본의 “정보 장수 사회” 연구팀의 초청으로 “고령자/장애자의 입장에서 본 멀티미디어를 생각하는 심포지움”에 참가하였으며 여기서 “한국 고령자들의 Virtual Community 원로방”이라는 제목으로 발표한바가 있다. 이러한 모습을 국내의 회원들에게 보여 드리기 위해서 “한·일 고령자 영상 회의”를 한국통신의 협조로 개최한 바도 있다. “영상회의”라고 한다면 직위가 높은 사람들의 전유물인 것처럼 알려져 있지만 사회로부터 소외된 고령자들도 한번쯤은 봐야 한다고 생각한 것이 적중하였다. 회원들은 모두가 영상 회의를 즐겼다.

이 세미나에는 250명의 고령자가 영상을 빔 프로젝트로서 확

대한 화면을 보고 있었으며 좌측 스크린에는 컴퓨터 화면이 비추어져 있었다. 하루종일 그 많은 발표자, 토론자, 질의 응답자들의 발언 하나 하나가 동시에 입력되어서 화면 가득히 글자가 나온다. 기록실을 보니까 4명의 전문속기사가 모두 PC로서 발언 내용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모두 수록해서 데이터베이스화 하고 있었다. 그야말로 “에헴”하는 기침 소리만 채록하지 않고 청중들의 웃음소리는 (웃음)이라고 요약되어서 화면에 나타난다.

통상적으로 우리 나라에서는 녹음을 해 두었다가 나중에 이것을 글자 화하는 것이 상례인데 대충 1시간 연설에 문자화에 빠른 사람이 12시간 걸린다고 한다. 그러나 이것이 거의 동시에 기록된다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신통하기 짝이 없다. 국회 같은 곳에서는 속기사가 있다. 그러나 속기사들의 펜 놀림은 금방 기록하기는 해도 이것이 문자화가 되려면 또한 엄청난 시간이 걸리게 마련이다. 리얼 타임으로 문자화

를 해치우는 일본의 젊은이들을 보면서 엄청난 심술이 났다.

도처에서 시시각각으로 정보가 생산된다. 기록 능력이 우리 정도밖에 안된다면 데이터베이스화 능력이 그만큼 모자란다는 뜻이다. 이러한 늦어 빠진 기록을 기다리다가는 정보의 효력마저 상실하여 버리는 경우가 그 얼마나 많은지... 있는 것도 존재하고 있는것마저 기록하지 않으니 언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 것인가?

데이터베이스의 목적은 분명히 검색과 축적에 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검색이 모두인 것처럼 착각을 한다. 축적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충분히 고려하여 축적에 신경을 써야 한다. 여기서 혼란이 생긴다. 정보를 어떻게 축적할 것인가이다. 원문 그대로 사진 촬영하듯이 촬영해서 디지털화 한 다음 정보 축적을 할 것인지, 아니면 원문을 그대로 다시금 입력할 것인지 혼란에 빠진다. 컴퓨터 단말기로서 정보검색만 하는 사람들은 원문을 잘 읽지 않는 버릇이 있다. 이래서는 제대로 정보 검색이 될 수가 없다. 이러한 혼란을 막아 줄 새로운 매체가 생겨났다. 이른바 멀티미디어이다.

며칠 전에 등기부 등본을 열람하려 등기소에 갔다. 용지에 몇 자를 적어서 제출했다. "30분 후에 오십시오"

30분 후에 가니까 아직 안 나왔다고 했다. 그래서 주위를 살펴보니 바로 등기부등본철이 그득한 선반이 줄줄이 서 있는 방에서 몇 사람이 열심히 파일을 찾고 있다. 드디어 한사람이 몇 권의 파일을 가져나와서 제출한 종이 쪽지를 보면서 페이지를 찾고 그것을 복사기에 얹어서 복사를 한다. 그리고 나서 고무도장 몇 개를 찍고 관인을 찍는다. 그리고 서는 창문에 앉아있는 사람에게 맡기고 또 찾으러 들어간다. 한시간만에 등본이 교부되는데 그 자리에서 1,200원의 수수료를 요구한다. 지불하고 찾아왔다. 이러한 모습은 비단 법원 등기소만의 모습이 아니다. 웬만한 관공서는 아직도 거의 모두가 비슷하다.

이렇게 데이터베이스로서 쓸모가 있을 법한 것은 아직도 데이터베이스화 하지 못하고 있다. 저 방안에 들어 있는 등기부를 모두 데이터베이스화 한다면 얼마나 편리할까?

러시아(구 소련)에 가면 도처에 줄서기라고 미국 사람들은 놀리던데 우리 사회에서도 줄서기가 적지 않는 듯하다. 아마도 가장 극심한 줄서기는 철도나 고속버스가 명절에 앞서서 예매 창구의 줄서기는 정말로 고질이었다. 최근에는 전산화가 되어서 좀 나아졌다고 하지만 해소되었다고는 할 수가 없다. 이와 같이 줄서기

가 심한 곳부터 먼저 데이터베이스화 우선 순위를 잡아야 하는데 1년동안 한두번 뒤져볼까말까한 자료를 먼저 데이터베이스로 만든다는 것은 아무래도 앞뒤를 가리지 못한 것처럼 느껴진다.

등기소라면 등기소, 동회라면 동회, 나름대로의 의무와 책임이 있다. 이들은 나름대로의 정보를 수집 관리 및 봉사를 해야 하는데 이것을 만약에 전산화할 때 스스로 해서 어느 정도의 부가가치를 스스로 얻을 수 있도록 고려되어야 한다. 가령, 이러한 데이터를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기 위하여 공개하지 않는다고 "정보공개법" 운운 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 다만, 만들어 둔 데이터베이스의 이용을 제한하는 것은 말이 될 것이다.

어느 사무실은 광케이블을 가설해서 전자 결재까지 한다고 한다. 그리고 어느 사무실은 아직도 선반 위에 얹어 둔 등본 철을 손을 찾아서 복사를 해주면서 민원 업무를 하고 있다. 어디엔가 불균형이 존재하는 것 같다. 여전히 줄서기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 우리는 무엇부터 먼저 데이터베이스화할 것인가 완급을 잘 따져서 진행하는 지혜가 아쉽다고 아니할 수 없다. 

